‘지방 소멸 대응’ 전남 교육 거버넌스 구축 앞장

전남지방시대연구원 창립 1주년

동신대서 정책포럼…비전 등 제시

이주희 총장 “문제 해결 적극 참여”

동신대학교는 최근 동신대 중앙도서관 동강홀에서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이주희 동신대학교 총장, 윤병태 나주시장, 이재태 전남도의회 의원, 정순남 전남지방시대연구원장 등 전남 지역 주요 인사와 시민단체, 교육 전문가,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지방시대연구원 창립 1주년 기념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동신대학교 제공〉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전남 지역 공동체들이 미래 발전을 위한 교육 거버넌스 구축 논의에 머리를 맞댔다.

7일 동신대학교에 따르면 최근 전남지방시대연구원 창립 1주년 기념 정책포럼이 동신대 중앙도서관 동강홀에서 개최됐다.

‘교육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지방시대에 걸맞은 지역 맞춤형 교육 거버넌스 구축과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 운영 방안을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정책포럼에는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이주희 동신대학교 총장, 윤병태 나주시장, 이재태 전남도의회 의원, 정순남 전남지방시대연구원장 등 전남 지역 주요 인사와 시민단체, 교육 전문가,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대중 도교육감은 ‘지방 소멸 대응 전남 교육 혁신 방안-글로컬 전남 교육이 선도하는 K 교육’을 주제로 초청 강연을 하며 전남 지역 교육 대전환과 글로컬 전남 교육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김 교육감은 “전남이 지방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교육을 중심으로 지역 맞춤형 교육특구 지정, RISE 기반 협력 체계 등 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학생 중심의 교육과 글로컬 전남 교육 실현을 통해 지역의 교육이 곧 지역의 미래가 되고 교육이 글로컬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순남 원장은 ‘지역 혁신 교육 거버넌스 체제 구축 방안’에 대해, 노용숙 전남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장은 ‘마을학교 교육 거버넌스 체제 구축 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하며 실효성 있는 교육 거버넌스 모델의 비전을 제시했다.

종합 토론에는 이재태 도의원, 용승민 전남도희망인재육성과 팀장, 지영희 화순문화원 사무국장, 정소영 함평 꿈꾸는터전 대표, 민병기 전남지방시대연구원 부원장 등이 참여해 교육발전 특구, 교육통합지원센터 설립 등 지방시대에 적합한 교육 거버넌스 운영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이주희 동신대 총장은 “국민주권 시대에는 주민들이 먼저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지자체가 현실적인 대안과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정부 지원 등 실질적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전남지방시대연구원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신대도 지방 교육 혁신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지역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남지방시대연구원은 2024년 출범 이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며 지역사회 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지역 공동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할 교육 거버넌스 모델 구축과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김다이 기자

‘시민이 묻고, 광주교육이 답하다’…市교육청, 중점사업 설명회

10월까지 진로진학 등 4개 주제 진행

첫회 오는 30일 시민협치진흥원서

광주시교육청이 시민과 함께 광주교육 중점사업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 열린다.

7일 광주시교육청시민협치진흥원에 따르면 오는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광주교육 중점사업 설명회 ‘시민이 묻고, 광주교육이 답하다’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이 광주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시민 관심도가 높은 진로진학, 미래융합교육, 생활교육, 국제교육 등 4개 주제를 선정해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시교육청 담당자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궁금해하는 광주교육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관련 제안을 받는 등 교육주체 간 직접 소통에 방점을 뒀다.

특히 사업 설명이 주를 이루던 기존 설명회와 달리 각 사업 담당자가 사업을 설명하고 이어 1시간-1시간30분 상당을 질의응답 및 토론시간으로 배정했다.

첫 행사는 오는 30일 오후 4시 광주시민협치진흥원 소강당에서 ‘광주교육 고입, 대입에 대해 답하다’를 주제로 열린다.

시교육청 진로진학과 진학팀 정훈탁 장학관이 고등학교와 대학교 입학 지원 등 진학 관련 사업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받을 계획이다.

참여 대상은 광주교육에 관심있는 학부모, 시민 등 선착순 70명이다. 참여 신청은 오는 15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https://naver.me/5ixAO304)으로 하면 된다.

이어 ▲8월 미래융합교육(수학, 과학, AI교육 등) ▲9월 생활교육(생활교육, 학교폭력, Wee프로젝트 등) ▲10월 국제교육(외국어교육,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다문화 등) 등 순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설명회를 통해 제안된 시민들의 의견을 잘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광주교육에 대해 직접 소통하며 상생교육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이 기자

동강대 글로벌외식조리제빵과, 학교급식 직무연수

영양사·조리사·영양교사 등 대상

녹색 식생활 활성화 레시피 등 교육

동강대 글로벌외식조리제빵과는 7일 “글로벌 요리와 건강한 녹색 식생활 활성화를 위한 2025년 학교급식 직무 연수를 대학 교수연구동 5층 융복합 쿠킹클래스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광주시교육청이 주관한 이번 연수는 학교급식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영양교사를 대상으로 지난 1일 시작해 오는 9일까지 계속된다.

연수 참여자들은 녹색 식생활 활성화를 위한 레시피를 개발하고 오븐을 활용한 조리 작업 능률성과 안전성 확대 등의 교육을 받는다.

또 인도의 탄두리 치킨&난, 태국의 까이팟맷마무엉(닭고기 캐슈넛 볶음), 이탈리아 고르곤 채소 그라탕, 일본식 채소 고구마 고로케 등 글로벌 푸드를 직접 만들어 본다.

연수를 담당한 오명진 교수는 “지역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음식을 먹고 미래 인재로 커 나갈 수 있도록 학교 급식 관계자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이 기자

‘글로컬 전남교육’ 홍보 역량 강화

道교육청, 11일 순천서 연수 실시

전남도교육청이 ‘지역과 세계가 공생하는 글로컬 전남교육’ 실현을 위해 일선 교육 현장의 홍보 역량 강화에 적극 나선다.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11일 순천 에코그라드 호텔에서 홍보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한다.

도교육청의 역점 시책인 ‘지역과 세계가 공생하는 글로컬 전남교육’ 실현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연수에는 직속기관·교육지원청·학교·마을 등 전남교육 현장에서 소식을 전하고 있는 홍보 기자단, 보도자료 작성 담당자, SNS 서포터스, 전남교육 홍보에 관심 있는 교직원 등 120여명이 참여한다.

연수는 기사 작성하기, 사진 촬영하기 등의 주제로 효과적인 보도자료 작성 밥법을 위한 강연과 소통 한마당으로 진행된다. 이어 ‘인스타그램, 블로그를 활용해 알차게 마케팅 하기’를 주제로 SNS 홍보 전략을 강의한다.

소통 한마당에서는 참가자들이 평소 홍보 활동을 하면서 느낀 고충과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열띤 토론을 벌이는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또한 성인지적 관점의 홍보물 제작 점검표 작성을 통해 성인지 감수성 교육도 실시한다.

이형래 홍보담당관은 “실제로 신문·방송 분야에서 기자 및 방송인으로서 경험이 있는 강사를 초청해 ‘기사 작성 및 사진 촬영, SNS 홍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이 기자